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4선거구 김희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난 해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자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동주택 관리’를 주관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에서도, 아파트의 물리적 관리 이슈를 넘어, 서로

존중·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과 그 근거를 담고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